

영상을 통해 본 방송과 현대사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980년대 대중문화는 컬러 텔레비전이 주도하였다. 컬러 텔레비전은 생생한 현장감과 입체감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음악, 드라마 등이 젊은층의 인기를 얻으며, 인기 연예인들도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이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지만, 점차 한류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의 프로 스포츠가 등장하고 이들 경기가 텔레비전에 중계되었고, 스포츠 중계의 전문화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의 변화에는 시대적 환경이 밀접하게 관련 있다. 1950, 60대의 방송프로그램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면, 1970년대는 전후에 태어나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의 자유 분방한 문화적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시기였다. 군사 쿠데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권의 고도성장정책으로 비로소 빈곤을 해결하고 삶의 여유를 갖기 시작한 시민들에게 상업방송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동시에 이러한 압축 성장을 위해 감수했어야 하는 시민권의 제한과 인권침해, 열악한 노동현실을 감추기 위해 국책사업과 반공정책, 국수주의적 시각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제작도 병행되었다.

1980년의 짧았던 ‘서울의 봄’ 이후 다시 군부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새로운 정권은 일명 3S(Sports, Screen, Sex)를 통해 소비문화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공영방송을 통한 상업적 경쟁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나온 6·29 선언으로 여러 가지의 민주화 조치와 공민영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연계되어 본격적인 상업경쟁으로 발전한다. 1990년대 이후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변되는 개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안적인 청년문화의 등장은 프로그램 제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0년초 디지털기술발전이 촉발한 변화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주제와 관점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인력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콘텐츠’시장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한다.

방송프로그램은 언제나 현대사의 주요 흐름을 반영하여왔다. 이 글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특징을 현대사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음악프로그램과 스포츠프로그램,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린이프로그램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탄생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화려한 안무를 곁들인 음악은 오랫동안 국민의 흥을 돋우어주는 역할을 했다. 어느 세대나 자기 세대가 즐겨듣던 대중음악과 가락을 기억하고 있고, 즐겨듣는 유행가를 알면 그 사람의 세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해방 후 미국풍의 카우보이음악과 로큰롤을 기억하는 세대, 1950년대말 혜성처럼 등장한 이미지자의 <동백아가씨>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트윈폴리오를 기억하는 세대와 70년대 말 ‘거부하는 몸짓으로 젊음’을 표출하던 통기타문화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다. 1970년대 말 등장하여, ‘오빠부대’의 처음을 열었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1980년대를 여는 길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장 잘 표현한 대중가요이기도 하다. 1970년대 국민은 전축에 LP판을 올려놓고 음악을 감상했지만, 대다수는 전축을 갖출만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방송이 중요한 통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카세트 테이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국민 개개인이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음악매체’가 생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녹음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방송기술이었다. 가장 먼저 등장한 테이프 녹음기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테이프 릴을 말아서 넣고, 테이프를 매끄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를 내장한 기기이다. 테이프 녹음기는 시청자가 경험할 수 있는 소리의 세계를 확장해주는 획기적인 매체였다. 이전까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시청자가 이제는 초당 4.75cm의 속도로 음악을 재생해주고, 또 원하면 자신이 즐겨듣는 음악을 녹음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음악매체’를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노래방기기의 보급은 국민 누구나가 연예인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새롭게 창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테이프 녹음기와 더불어 등장한 비디오 테이프는 가수를 꿈꾸는 시청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표정과 안무까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매체기술의 등장과 스타에 대한 팬의 열정은 누구나 ‘나도 스타가 되겠다’는 열망을 키우게 했다.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개인의 열망을 현실로 이끄는 매개체였다. 1970년대 서울에 있었던 음악감상실<세시봉(C'est si bon)>을 비롯한 음악다방이 통기타를 든 젊은 음악인이 가수가 될 수 있는 무대였다면, 문화방송이 1977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가요제>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문화방송이 1977년부터 개최한 <대학가요제>는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자유’를 노래하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기성세대가 흡수하려는 시도의 하나였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의 공식적인 표어는 ‘대학 풍토 조성과 건전가요 발굴’이었다. 이 가요제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창작곡으로 노래 실력을 겨루고, 본선은 문화방송을 통해 생방송 혹은 순차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문화방송은 1977년 9월 3일의 제1회 대학가요제 이후로 매년 행사를 개최했지만, 1990년대말부터 간혹 중단되다가 저조한 참여율과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 등장과 더불어 2012년 마지막 <대학가요제>를 개최하고 폐지했다. <대학가요제>와 더불어 시작된 문화방송의 <강변가요제>는 1979년 북한강변의 유원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에 2001년까지 진행되었다. <강변가요제>는 <대학가요제>와 더불어 신인가수의 중요한 등용문의 하나였다. <대학가요제>가 대학생만을 위한 등용문이었다면 <강변가요제>는 1999년부터 학력 제한을 없애고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효시가 된다.

이러한 오디션에서 대상을 받은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이범용과 한명훈의 <꿈의 대화>(1980), 이선희 <J에게>(1984), 높은음자리 <바다에 누워>(1985),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1986), 신혜철 <그대에게>(1988), 전람회 <꿈속에서>(1993) 등은 그해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다. 비록 대상을 수상하지 않더라도 심수봉의 <그때 그사람>(1978년)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1980년대 시대적 아픔을 대표하는 가요로 자리잡았다.

한편 문화방송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방송한 <주부가요열창>은 주부대상의 가요경연대회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선을 치루고, 연말에 월간 우승자들이 참가하여 최우수자를 선정하는 오디션프로그램이었다. 1980년대 주부들의 남편가요열창도 한 차례 실시되었다. 1988년과 1989년, 1990년 우승자와 남편가요열창 우승자가 모두 가수로 데뷔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작은 1950년 라디오 노래자랑에서 시작된다. 시청자가 라디오에 전화를 걸어서 반주에 맞춰 노래대결을 벌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자랑은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이벤트에 가까운 노래자랑이었고, 시청자가 출연하여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는 노래부르기와 춤추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주 방송되었다. 하지만 시청자가 출연하여 본격적으로 오

디션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한국방송이 1980년 11월 9일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신설하여 전국을 돌며 녹화한〔전국노래자랑〕이 출발점이 된다. 1983년부터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면서 ‘국민오빠 송해’라는 애칭을 얻은 MC 송해는 국내에서 단일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최장수 사회자이다. 시청자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공개오디션은 노래연습실의 보급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는데, 여기에 춤을 따라 출 수 있는 기기인 DDR(dance dance revolution)은 노래가사만 따라 부르는 형태에서 안무까지 따라할 수 있는 유행을 가져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관통하는 음악프로그램은 인기가요 순위를 정하는 음악프로그램과 연예인과 연예인지망생이 출연하는 생방송 음악공연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방송 중심의 음악프로그램은 2005년 7월 30일 MBC의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밴드 렉스와 더불어 무대에 올랐던 카우치 멤버 2명이 생방송 도중 바지를 벗고 하반신을 드러낸 채로 뛰기 시작하여 2-3초간 지상파로 방송이 중계된 사건 이후 폐지되었다. 이 사건으로 흥대에 숨은 실력파들을 차례로 소개하겠다는 MBC의 계획은 취소되고, 2010년까지 지상파 방송3사 음악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밴드의 무대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KBS는 2000년대에 세대별 음악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는 〈뮤직뱅크〉를 1998년 6월 16일부터 방송하고 있다. 방송초기부터 〈뮤직뱅크〉는 주MVP제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순위제가 문제가 되자 순위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다시 순위제를 부활하고 〈K-Chart〉라는 가요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0년에는 K-Pop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KBS 월드를 통해 약 54개국에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현재 〈뮤직뱅크〉는 한국은 물론 114개국을 대상으로 생방송되고 있다. 〈뮤직뱅크〉가 2-30대의 방송프로그램이라면, 〈콘서트 7080〉은 4-50대의 음악프로그램이다. KBS가 2004년부터 매주 방송하는 〈콘서트 7080〉은 음악프로그램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를 대상으로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당시의 인기 곡, 명곡을 통해 들려준다. 60대 이상은 1984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하는 〈가요무대〉가 있다. 〈가요무대〉는 전통과 현대의 가요를 총망라하여 한국 가요 가운데 주옥같은 명곡을 매주 주제별로 선정하여 소개하고 또한 잊히고 있는 옛가요를 재편곡하여 들려준다. 여기에 〈전국노래자랑〉과 〈열린음악회〉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MBC의 경우에는 〈생방송 음악캠프〉 폐지 이후 녹화방송

을 하는 〈쇼! 음악중심〉이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이다. MBC의 〈쇼! 음악중심〉은 초기부터 순위제를 폐지하고 가수들의 공연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순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각 방송사는 토크쇼를 겸한 음악전문프로그램을 육성해왔는데, KBS의 〈노영심의 작은음악회〉(1992~1994)를 시작으로 〈이소라의 프로포즈〉(1996~2002, 2011~2012), 〈윤도현의 러브레터〉(2002~2008), 〈유희열의 스케치북〉(2009~), 〈불후의 명곡〉(2012~), SBS의 〈김정은의 초콜렛〉(2008~2011), MBC의 〈나는 가수다〉(2011~2013), EBS의 〈스페이스 공감〉(2004~)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1990년대 이후 〈전국노래자랑〉류의 본격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등장으로 연계되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범람은 오디션에 참여하는 시청자 누구에게나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률경쟁에서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Mnet의 〈슈퍼스타 K〉(2009~), MBC의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2010~), SBS의 〈K팝스타〉(2011~), KBS의 〈서바이벌 오디션 TOP밴드〉(2012)와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영국의 방송프로그램 포맷회사인 ‘프레멘탈 미디어(Premental Media)’가 고안한 〈팝아이돌(Pop Idol)〉의 한국어 라이선스 판으로 시작한 일반인 대상 오디션 프로그램은 한국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는데, KBS의 〈전설을 노래하다 - 불후의 명곡〉(2011~)과 〈서바이벌 오디션 TOP밴드〉(2012~2013), MBC의 〈나는 가수다〉(2011~)가 대표적이다.

한국방송의 〈전설을 노래하다 - 불후의 명곡〉은 추억과 향수로 남은 명곡을 불렀던 가요계의 전설을 직접 초대하여, 후배 가수들이 경연을 펼치는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선배가수의 노래를 후배가수가 재해석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고, 〈서바이벌 오디션 TOP밴드〉는 개인이 아닌 밴드만을 대상으로 대국민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신설되었다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수가 모두 신인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미여관〉이나 〈게이트플라워즈〉, 〈브로큰 발렌타인〉처럼 무명이었던 독립밴드가 본격적으로 지상파 채널에 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2011년부터 MBC가 도입한 〈나는 가수다〉는 매주 7명의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 자신의 곡이 아닌 다른 가수의 곡을 편곡해 부르는 과제에 도전하는 경쟁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도전은 일반인 5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평가를 받고, 이

가운데 1명이 탈락하고, 나중에 새로운 가수가 이를 채워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MBC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한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은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에서 함께 진행한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실시간 투표 때문에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EBS가 2004년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사에 위치한 공연장 ‘EBS 스페이스’에서 개최하는 대중음악 콘서트를 공연실황과 취재, 인터뷰 등을 가공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은 ‘음악성’과 ‘라이브 역량’을 기준으로 출연자를 선정하여 MC 없이 단독공연을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의 음악프로그램이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이제 K-pop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에 진출하여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류의 새로운 동력으로 K-pop이 떠오르고 있다. K-pop은 1990년대 이후 국내 기획사들이 팝스타 양산을 위해 유망주들을 모아 육성하는 스타양성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으며, 해외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국내방송사와 기획사가 공동으로 해외공연을 실시하면서 K-pop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유투브어워드에서 소녀시대가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K-pop의 해외확산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건이었다.

2. 스크린을 장악한 스포츠, TV가 스포츠산업을 이끌다.

1936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땀던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단 것은 일장기였다. 우리나라 선수가 최초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올림픽은 1948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4회 하계올림픽이었다. 런던 올림픽은 1944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은 이 대회에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였으며, 올림픽에 출전하여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안 선수,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경기는 당시 서울중앙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을 통해 전국에 중계되었는데, 이후 스포츠중계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었다.

스포츠중계는 고교야구와 실업야구, 축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전문성을 쌓아갔는데, 1970년대에는 축구를 비롯하여 프로레슬링과 복싱, 아마추어 야구가 스포츠중계를 전문으로 하는 캐스터가 등장했다. 1971년 한국에서 최초로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일명 박스컵)가 개최되면서, 스포츠중계와 녹화기술은 급속히 발전한다.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1999년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축구 대회로, 출범 당시의 이름은 박스컵(박정희 대통령컵) 쟁탈 아시아축구대회였다. 코리아컵은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기량 향상과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 창설했다. 창설 초기에는 동아시아 축구강국이었던 버마와 크메르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이 경기를 계기로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방송기술 교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송교류를 시작한다.

이후 축구는 한때 국기(國技)라고 불릴 정도로 붐을 이켰으며, 국가대표였던 차범근 선수와 허정무 선수가 독일과 네덜란드 프로축구팀에 입단하면서 신화가 만들어진다. 특히 사관학교에서 축구팀 주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1980년 12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할렐루야 프로축구단이 창단되고, 이어서 1982년 유공에 창단된 이래 대우와 포항제철이 차례로 창단되어 1983년 5월 첫 프로축구 리그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프로축구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12개팀,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10개 팀이 소속될 정도로 성장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다채널의 등장 이후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의 프로축구리그를 직접 수신하는 팬이 늘어나면서 축구중계는 스포츠팬들이 선호하는 방송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외국의 프로리그중계나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와 달리 K리그 중계의 시청률은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축구와 더불어 인기 있던 스포츠종목인 프로레슬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스포츠경기 중 하나였다. 제일교포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역도산의 제자인 ‘박치기 왕 김일’은 장영철, 천규덕과 더불어 1세대 프로레슬링 선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김일과 안토니오 이노끼의 한일전은 최고의 명승부로, 온 국민이 흑백텔레비전 앞에서 김일을 외치며 응원하던 인기종목이었다. 마찬가지로 ‘베고폰 스포츠’로 불리는 복싱은 글러브 하나만 있으면 정신력과 체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종목으로 알려져, 가난을 벗어나고픈 청소년들의 ‘꿈의 스포츠’였다. 월남민 출신의 프로복서였던 김기수가 1966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를 2대 1 판정승으로 이기고 세계복싱협회(WBA) 주니어미들급 세계챔피언에 올랐다. 이후 1974년 7월 3일 프로복서 홍수환이 남

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웨스트릿지 테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WBA) 밴텀급 타이틀전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15회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한 뒤, 전화로 어머니에게 외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는 방송이 유행시킨 당시의 최대 유행어였다. 그러나 프로레슬링과 프로복싱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기하락을 맞이한다. 그 자리를 채운 종목의 하나가 바둑이다. 바둑은 바둑기전(-棋戰)으로 불리는 대회에서 프로 바둑 기사들이 상금을 걸고 승자를 가리는데, 최초의 기전은 1941년 시작된 일본의 혼인보전(本因坊戰)이다. 1980년대는 거액의 상금이 걸린 국제기전에서 조훈현, 이창호와 같은 프로 기사들이 경기하는 장면이 자주 방송에 생중계되었다. 바둑은 일상적인 여가활동의 하나로 정착하면서 아직도 전문TV스포츠채널이 있는 몇 안되는 스포츠종목의 하나이다.

축구와 더불어 한국인이 선호하는 스포츠장르가 야구이다. 야구는 1900년대초 대한제국에서 YMCA야구단이 창단된 이래 일제시기에 수많은 중고교 야구단과 지역야구단이 창단되어, 한 일간의 경기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언론사가 개최한 고교야구대회는 방송의 단골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열기가 1982년 프로야구의 등장과 함께 스포츠경기 정규 편성으로 옮겨갔다. 1982년초 기업이 주도하는 6개의 프로야구팀이 연고지별로 창단되었으며, 3월 27일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되었다. 프로야구는 지역에서의 독점권을 갖는 연고팀이 지역출신 선수의 연고권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통한 지역경쟁구도로 발전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원년 개막경기에서는 양팀이 7:7로 맞서던 연장 10회 말 2사 만루 찬스에서 삼성 이선희 투수의 공을 MBC의 이종도 선수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뜨리면서 마무리되었다. 이해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겨룬 한국시리즈에서도 공교롭게 개막전의 만루홈런을 맞고 패전투수가 된 삼성 라이온즈의 이선희 투수가 1982년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OB베어스와 9회초 3:3 동점상황에서 밀어내기에 이어 OB베어스의 김유동 선수에게 만루홈런을 맞아 3:8로 패배하였다. 특히 스포츠경기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영원한 맞수인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야구팀이 198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이 일본대표팀에 8회까지 2:0으로 끌려가다가 9회에 한대화 선수가 3점 홈런을 터트리며 역전승을 거두면서 프로야구는 스포츠의 팬덤현상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었고, 스포츠중계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프로야구 창단시기와 엇비슷하게 등장한 종목이 프로씨름이다. 1983년 개최된 제1회 천하장사 씨름 대회 결승에서는 ‘모래판의 여우’로 불리던 최육진을 꺾고 이만기가 우승하면서, 전통 놀이인 씨름은 프로경기로 거듭난다. 이만기는 1980년대 이봉걸, 이준희와 경쟁을 하며, 백두장사 18회, 천하장사 10회, 한라장사 7회로 한국 씨름판의 황제로 명성을 떨쳤다. 1989년 7월 11일 19세의 소년장사 강호동은 당시로서는 전설적인 씨름선수였던 이만기를 누르고 백두장사에 등극한다. 강호동은 1992년 5월 14일은퇴할 때까지 백두장사 7회와 천하장사 5회로 명성을 떨쳤다.

이러한 개별 종목과 더불어 방송기술과 방송장비개발을 급속히 발전시킨 스포츠경기는 국제행사였다. 198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86 아시안게임은 스포츠발전과 방송기술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국제대회를 개최해본 경험이 없던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이후 스포츠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다. 1988년 하계 올림픽은 체제안정을 위해 군사정권이 선택했던 정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룹 코리아나가 불렀던 〈손에 손 잡고〉의 가사처럼 88 서울올림픽은 역설적으로 전세계에서 온 스포츠인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한국사회를 외부에 개방하면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범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국제행사를 계기로 컬러 텔레비전은 안방의 필수구구로 자리 잡는다. 또한 스포츠중계차량과 헬리콥터를 이용한 중계, 위성을 통한 해외송출 등 방송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가전회사와 방송장비제작사는 텔레비전수상기와 방송장비, 방송기술을 국산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0년대는 프로씨름이 시들해지고 1995년 케이블방송의 등장은 스포츠종목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1997년 창설된 프로농구와 2005년 창설된 프로배구는 동계스포츠가 부실했던 한국에서 스포츠방송중계의 효자역할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마지막 승부)(1994년 MBC, 시청률 48.6%)라는 농구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후 다양한 스포츠드라마가 등장하지만, (마지막 승부)에 비견할만한 드라마는 없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성공에 자극받아 프로농구가 조기에 출범했다고 할 수 있으리만큼 방송의 영향력이 컸다. 또한 이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스포츠종목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스포츠경기만 중계하는 전문채널이 등장하면서 지상파3사의 스포츠채널과 더불어 골프채널, 바둑채널, 낚시채널, 당구채널 등 다채널이 등장한다. 여기에 컴

퓨터게임까지 포함시킨다면 스포츠채널의 외연은 더 넓어진다.

이러한 인기를 뒤이어 등장한 스포츠는 골프였다. 1998년 박세리가 여자프로골프대회(LPGA)인 LPGA 챔피언십과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프로골프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스포츠 경기로 등장한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암울한 시대에 실의에 빠진 국민들은 악전고투 끝에 우승하는 박세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었다. 이후 한국의 여자프로골프 선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여자프로골프대회에서 어학테스트가 등장할 만큼 한국은 골프강국이 된다. 또한 남자프로골프대회(PGA)에서 최경주가 우승하면서 한국의 남녀 골프선수가 세계의 주요 LPGA경기와 PGA경기를 주도하는 황금시대를 연다.

1990년대가 스포츠종목과 채널의 다양화시대라면, 2000년대는 국제스포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은 잠시 주춤했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열기를 다시금 불리일으켰고, 한국의 여자프로골프선수인 박세리, 미셸 위 등이 LPGA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새로운 스포츠스타로 떠올랐다.

이러한 스포츠스타의 등장으로 전통적으로 구기종목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개인기록에 주목하는 스포츠중계가 시작된다. 박태환은 대한민국의 수영 역사상 최초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자유형 200m에서의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수영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선수로는 최초로 수영에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으며, 김연아는 2010년 동계 올림픽 여자 싱글 부문 챔피언, 2014년 동계 올림픽 여자 싱글 부문 은메달, 2009년 · 2013년 세계 선수권 챔피언이 되었다. 또한 2009년 4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우승, ISU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우승을 통해 피겨 스케이팅의 여자 싱글 부문에서 4대 국제 대회(동계 올림픽, 세계 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의 그랜드 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한 선수이기도 하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관심밖에 있던 동계올림픽도 관심을 끌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만든 공로는 김연아와 더불어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적었지만, 1998년 전미경과 김동성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한다. 이후 대한민국은 동계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등의 국제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많이 배출해 왔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의 상당수를 대한민국

국 국가대표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맡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쇼트트랙에 이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달리 방송중계 기술개발과 방송장비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의 스포츠중계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드라마 폐인과 한류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드라마를 편성한 것은 1957년 KBS 라디오가 일요일 저녁마다 방송한 (청실홍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드라마 경쟁시대가 열린 것은 1970년 TBC의 (아씨)와 이를 벤치마킹한 KBS의 (여로)가 일일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 매일같이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TBC와 KBS가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시도하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자, TV보유대수와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드라마 (아씨)와 (여로)의 성공 이후 텔레비전방송에서 드라마를 이끌어간 것은 MBC였다.

MBC는 비교적 후발주자로 드라마시장에 진출하지만 1971년 (수사반장)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방송한 수사드라마의 장을 열었다. (수사반장)은 1971년 3월 6일부터 1984년 10월 18일, 1985년 5월 2일부터 1989년 10월 12일까지 제작·방영한 범죄 수사 드라마였다. 대한민국 방송기술 역사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의 하나이다. 1980년대 방송통폐합 과정에서 TBC가 KBS에 흡수되자, 드라마왕국으로서의 MBC의 위상은 더 커진다. MBC는 1980년대 (제1공화국)을 시작으로 현 대사를 재조명하는 드라마를 제작했으며, 동시에 (조선왕조실록500년)을 통해 조선 역사를 드라마로 제작하는 시도를 했다. 1980년에는 (전원일기)를 통해 농촌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 연다. (전원일기)는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MBC에서 방송했는데, 한국 드라마 사상 최장수로 방송한 드라마로 총 1088회에 걸쳐 방송되고 막을 내렸으며, (전원일기) 초기는 흑백으로 방송되고 이후부터 컬러로 방송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MBC는 (질투)(1992)를 시작으로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사랑을 대변하는 드라마를 내놓는다. (질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로도 기억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어있던 드라마의 구조를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한 드라마로도 평가받는다. 이후 MBC는 김성중 원작의 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1991년-1992년 사이에 중국 본토와 필리

핀 등에서 현지 로케이션으로 제작했다. 식민지시기인 1940년대 일제의 강제징용과 종군위안부, 한국전쟁 시기의 빨치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주제를 드라마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드라마 불패의 법칙’이다. 방송학 연구의 한 영역으로 다룬 정도로 드라마는 한국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방송콘텐츠이다. MBC의 최장수 드라마였던 〈수사반장〉(1971~1984, 1985~1989)이나 KBS의 〈전설의 고향〉(1977~1989, 1996~1998)처럼 장기간 방영된 시리즈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일드라마가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드라마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시청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갤럽(Gallup)이 300여 가구를 패널로 실시한 이 조사는 현재는 AGB닐슨과 TNmS라는 두개의 민간조사기관이 시청률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시청률조사기관의 조사패널가구는 3750가구로 23년 전과 비교하며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국내에서 시청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1996~1997년 사이에 방송된 KBS2의 〈첫사랑〉으로 65.8%를 기록했다. 그 뒤를 1991년 방송된 MBC의 〈사랑이 뭐길래〉(64.9%), 1995년 SBS가 방송한 〈모래시계〉(64.5%)가 차지했다. 당시 조사패널가구가 적었고, 조사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는 사실과 드라마시청의 경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시청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SBS가 1995년 창사특집으로 방송한 〈모래시계〉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최초의 드라마이다. 〈여명의 눈동자〉에서 호흡을 같이 한 김종학 PD와 송지나 작가가 감독과 각본을 맡았다.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찍 귀가해 거리가 한산할 정도여서 〈모래시계〉를 ‘귀가시계’라고 부르기도 했다. SBS는 〈모래시계〉에 이어서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드라마로 〈야인시대〉를 2002-2003년 사이 총124회 방송했다. 이 드라마는 2004년 몽골에서도 방송되어 김두한 역을 연기했던 배우 안재모는 사회주의자인 나차긴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 으로부터 국민초청을 받기도 했으며 주로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던 몽골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SBS가 2003년 방송한 24부작 드라마 〈울인〉은 실존 인물 차민수를 모델로 그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이었는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쪽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CD가 유통되며 큰 인기를 얻었고, 한때 울인 스타일의

머리모양과 행동이 유행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은 SBS의 출범 이후 지상파 3사의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으로 드라마 경쟁시대체제도 구축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드라마의 표준포맷이 된 미니시리즈가 등장하기 이전에 작품성을 갖춘 드라마는 KBS의 〈TV문학관〉과 MBC의 〈베스트셀러극장〉이 단연 돋보였다. 〈TV문학관〉이 선보였던 〈삼포 가는 길〉이나 〈메밀꽃 필 무렵〉처럼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베스트셀러극장〉은 〈삼포의 요정〉처럼 현대적 감각의 드라마를 추구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했다.

지상파 3사의 방송드라마경쟁은 1995년 대거 SBS로 자리를 옮긴 제작진과 작가들이 창사특집으로 제작했던 〈모래시계〉가 시청률시장을 평정하면서 부터 KBS-MBC-SBS가 파도를 타듯 매년 번갈아가며 시청률경쟁을 벌였다. MBC가 1999년 총 20부작으로 방송했던 〈국회〉는 1947년 크라운제과 윤탈현이 서울역 뒤편 중립동의 ‘영일당’에서 개발한 ‘산도’ 과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드라마인데, 방영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국회샌드〉가 출시되어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한 드라마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드라마페인’으로 불리는 마니아들을 위한 드라마제작이다. DMB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드라마 마니아들은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드라마를 시청하고, 때로는 승용차를 세워두고 드라마를 시청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러한 두터운 마니아층이 형성된 대표적인 드라마로 MBC가 제작했던 〈허준〉(2000)과 〈다모〉(2003)를 들 수 있다.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을 원작으로한 〈허준〉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 허준의 삶을 그린 퓨전 사극이다. MBC가 1999년~2000년 사이 방영하였으며, 2000년 이후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50%가 넘는 평균시청률(53%)을 기록했다. ‘허준페인’이 있다고 할 만큼 마니아 드라마기도 하다. 〈허준〉에 이어서 MBC는 〈조선 여형사 다모(茶母)〉를 2003년 방송한다. 17세기 말엽(1690)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HD로 기획된 드라마로 시청률은 평균적이었지만, ‘다모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표적인 마니아 드라마였으며, MBC가 오랫동안 방송했던 〈조선왕조실록500년〉과 같이 대하드라마류가 아닌 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유형의 사극이었다. 이러한 사극은 영화제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KBS는 대하드라마 〈태조왕건(200부작)〉(2000~2002)을 비롯하여 주로 주말말을 대하드라마로 장식했다면, MBC는 1980-1990년대 제작한 〈조선왕조 500년〉과 〈제1공화국〉 이후 공화국시리즈를 통해 대

하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00년대에는 다채널의 등장으로 1990년대처럼 시청률 50%를 넘는 드라마는 등장하지 않지만, ‘드라마페인’을 위한 마니아 드라마 이외에도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한류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일본의 중년여성들을 울린 KBS의 〈겨울연가〉(2002)는 본격적인 한류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윤석호 PD의 계절 시리즈 중 〈가을동화〉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주요 무대였던 춘천구시가지와 남이섬을 지금까지도 겨울연가팬이 방문할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에 한류(韓流) 열풍을 불러일으킨 기폭제가 된 대표적인 드라마이다. 〈가을동화〉는 KBS에서 2000년 방송된 윤석호PD의 사계 시리즈 제1탄으로 은서와 준서 남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총 16부작 미니시리즈이다. 드라마 내용을 소재로 한 소설(오수연 저, 생각의 나무 刊)로도 출판되었다.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연이어 제작되어 한류 붐을 일으켰다. 또한 MBC에서 2003년~2004년 방송한 〈대장금〉은 조선시대 중종의 신임을 받은 의녀(醫女)였던 장금(長今)의 삶을 재구성한 가상드라마이다. 해외에서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미국 등지에도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후 한류드라마는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시아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스타의 해외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러한 한류드라마의 해외진출은 주춤한 상태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자국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도입 등 배타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제작사의 소재고갈과 제작비 부담 등이 일정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한중합작이나 한일합작 등을 통한 새로운 출구전략이 마련되고 있으며, 대형기획뿐만 아니라 〈겨울연가〉처럼 한국적 정서에 호소하면서도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드라마 소재개발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드라마의 특징은 이른바 7080세대의 정서를 자극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률 경쟁에서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7080이 아닌 90학번 이후의 X세대를 겨냥한 드라마가 7080세대를 누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MBC와 SBS의 시트콤에서 시작하는데,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과 같은 류의 감성드라마는 〈감자별 2013 QR3〉과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급남녀〉의 성공으로 연계된다.

4. 다큐멘터리의 진화, 역사와 환경을 넘어 감성 다큐로

대한민국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는 주로 해외의 우수작을 저가로 들여와 방영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국내 지상파방송사가 직접 한국적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가면서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80년의 아날로그 방식의 다큐제작은 제작진이 위장천막에 숨어서 지리산의 야생반달곰을 수일 간 기다리거나, 한국의 갯벌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원하는 화면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8mm캠코더와 같은 소형방송장비가 등장하면서 다큐제작은 활기를 띤다.

KBS는 1993년 〈다큐멘터리 극장〉을 통해서 역사다큐를 시작한 이래, MBC와 SBS, EBS도 스페셜 다큐를 통해서 역사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제작하였다. 역사다큐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맞물리면서 매주 역사관련 다큐를 볼 수 있었다. KBS의 〈역사스페셜〉은 시즌1(1998년 10월 17일~2003년 6월 21일, 214회)과 시즌2(2005년 5월 6일~2006년 9월 29일, 64회), 시즌3(2009년 7월 4일~2012년 12월 13일, 126회)가 방송되었다. 〈역사스페셜〉은 각급 학교에서 역사수업용 영상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소재고갈로 인해서 잠시 제작이 중단되었지만, 시즌4를 준비중이다. KBS는 〈역사스페셜〉과 함께 현대사를 집중 조명한 〈인물현대사〉를 2005년 방송한다. 〈인물현대사〉는 현대사 관련 다큐멘터리로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 인물 중에서 시대적 과제와 가치에 헌신했던 인물의 현재적 의미를 통해 한국현대사를 재조명한다는 목표로 방송되었다. 방송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역사다큐뿐만 아니라 다채널의 등장과 더불어 ‘거대담론’의 시대는 가고, 일상과 주변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다큐가 늘어나고 있다. KBS는 〈환경스페셜〉(1999~2013)을 통해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KBS스페셜〉과 〈수요기획〉(이후 〈금요기획〉), 〈파노라마〉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다. KBS의 〈환경스페셜〉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2013년 4월 3일 잠정 폐지되었다. 〈환경스페셜〉은 환경문제를 고발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스페셜〉은 1990년말 자연다큐멘터리 ‘동강’의 방영이 큰 반향을 얻은 이후에 〈일요스페셜〉에서 〈역사스페셜〉과 함께 분리되어 1999년 5월 5일부터 고정 편성되었다. ‘동강’이나 ‘4대강’, ‘천수만’, ‘환경폐기물로 만든 시

멘트 ‘와 같은 환경스페셜이 다룬 주요 주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KBS는 이러한 무거운 주제이외에도 (한국재발견) (2011~2013)처럼 전국의 주요지역의 풍경과 사람, 환경을 소개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KBS가 2007년 방송한 (차마고도)는 기존의 다큐와 달리 전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형 제작물로 평가받는다. (차마고도)는 ‘마방(馬幫)’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서로 사고 팔기 위해 지나다닌 곳으로 전성기에는 유럽까지 연결된 문화교류의 길목이었다. 해발고도 4000미터가 넘는 험준하고 가파른 길이지만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있다. KBS는 (차마고도) 이후 매년 두세건의 대형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있다. MBC와 SBS도 스페셜을 통해서 환경과 일상, 현대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다큐로 제작하였다. 다큐멘터리 제작의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국내방송사가 제작하는 명품다큐가 늘어나고 있다. KBS의 (차마고도), (누들로드), (황하)나 MBC의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EBS의 (한반도의 공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BS가 2005년부터 제작해 온 (지식채널 e)는 디지털방송 환경에 맞는 5분짜리 짧은 동영상의 전형을 만들었다. (지식채널 e)는 EBS에서 방송하는 5분 정도 길이의 단편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각 에피소드의 처음에는 (지식채널 e)라는 프로그램명과 연이어 그 날의 주제가 중 하나가 보이게 된다. (지식채널 e)는 일반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내레이션 없이 배경음악이 삽입되는데, 이 배경음악은 주제와 일치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EBS가 2008년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기획한 (한반도의 공룡)은 대한민국의 컴퓨터그래픽 기술만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백악기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의 이야기를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 시간에 따른 줄거리 구성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KBS가 2000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인간극장)은 보통사람들의 실제 삶을 밀착취재하여 제작한 휴먼다큐프로그램이다. (인간극장)은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KBS가 2007년 신설한 (다큐3일)은 프로그램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한적한 마을, 교통 수단, 사건 현장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HDV 카메라, 미속카메라, 지미집 등 여러 장비로 촬영하며, 인위적인 구성을 배제하고 1시간 HDV 6mm 테이프 60개 분량을 1시간으로 압축 편집하여 현장에서 일어

난 일들을 시간순서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리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정확하게 다큐멘터리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시사고발프로그램도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개방성을 대표하는 탐사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은 생활 속의 문제를 집중 추적하는 교양과 오락성을 갖춘 시사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1983년 2월 27일 처음으로 방영되었다. (추적60분)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탐사보도 방식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을 통해 문제해결의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PD저널리즘의 전형으로 손꼽힌다. MBC는 이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으로 1990년 (PD수첩)을 신설했다. (PD수첩) 역시 탐사보도 전문프로그램으로 PD저널리즘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PD수첩)은 사회 이슈, 단순히 보도 된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듀서들이 후속 보도하거나 직접 심층 취재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SBS가 1992년 3월 31일 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된다. 사회와 종교, 미제 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영방송에서 만든 다큐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 되었으며, SBS 최초의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주제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5. ‘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가 디즈니와 아톰을 넘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화

1970년대 어린이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은 만화영화는 대부분 한국어로 더빙된 디즈니와 일본애니메이션이었다. 물론 극영화로 <홍길동>과 <태권V>처럼 국산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상영되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TV 앞에 앉아 만화를 기다리던 어린이들에게는 미국의 카우보이나 조로, 도널드덕 그리고 일본에서 온 <아톰>이 더 친숙했다. 1980년대도 1970년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은하철도999>, <미래소년코난>, <소공녀>, <허클베리핀>, <켄디>, <키다리아저씨>와 같이 만화마저도 원작은 유럽이나 미국이었지만, 만화는 일본에서 제작하고 한국에서 밀그림을 하청받아 그리던 작품이 많았다.

1980년대 방송용 어린이만화영화는 이러한 어린이프로그램을 국산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교육용 프로그램인 KBS의 (TV유치원 하나 둘 셋)

(1982~)과 MBC의 (뽀뽀뽀)(1981~)가 이때부터 제작되었으며, 1987년 최초의 국산 애니메이션인 (떠돌이까치)(1987)를 제작·방영한 이후 KBS는 (아기공룡 둘리)(1988), (달려라 하니)(1988) 등을 만화로 제작했으며, MBC도 (달려라 호돌이)를 필두로 (머털도사) 등을 제작·방영하였다. 2000년 이후 KBS교육채널로 출발했다가 독립한 EBS가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어린이시청자 확보를 위한 경쟁은 KBS와 EBS, 어린이대상 상업채널로 삼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상파방송사의 어린이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은 1995년 케이블 TV가 등장하면서 신설된 만화전문채널인 투니버스, 애니원, 디즈니채널, 재능TV, 대교어린이TV, 니켈로데온, 카툰네트워크 등이 미국과 일본, 유럽의 만화를 24시간 편성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은 다시 암흑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암흑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은 공영방송인 EBS와 KBS였다. KBS는 어린이 프로그램인 (TV유치원)을 비롯하여 매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으며, 영국BBC의 (텔레토비)를 겨냥한 (후토스)를 만들기도 했다, EBS도 어린이 프로그램인 (딩동댕유치원)과 (방귀대장 뽀뽀이)를 비롯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MBC도 (뽀뽀뽀)를 비롯하여, (신통방통 호기심탐험대) 등 어린이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꼬마버스 타요)를 통해서 어린이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KBS는 어린이전문채널인 KBS Kids채널을 신설하여 EBS와 더불어 공익적인 어린이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EBS는 외국의 애니메이션을 수입하던 초기와 달리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EBS가 아이코닉스와 함께 제작하여 2003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만화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전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되었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방영권사업과 재판매수입보다 캐릭터를 이용한 출판 및 완구제작, 학용품, 의류 등 일명 머천다이저(merchandiser) 분야에서의 수입이 더 많아지면서 어린이용 프로그램 제작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첫 우표로 뽀로로 우표를 발행하였다. 이후 2011년 크리스마스 썰에도 뽀로로가 모델로 활용되었다. (뽀롱뽀롱 뽀로로)를 이어 받은 캐릭터가 (꼬마버스 타요)이다.

(꼬마버스 타요)는 (뽀롱뽀롱 뽀로로)에 이어서 아이코닉

스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하고 서울특별시와 EBS가 2010년부터 공동 제작한 어린이 만화로 시내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고, 일부 서울 시내버스에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가 그려지면서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창남(2014). 문화적 변화에 따른 이야기 담론의 지형변화. KBS방송문화연구소, 「공영방송」, 제 3호(10~34쪽).
2) 이영미(2013). 세대간 취향 갈등에 방송 드라마가 대처하는 법. KBS방송문화연구소, 「공영방송」, 제 2호(8~42쪽).
3) 황상연(2013). 외면하기 혹은 바라보기. KBS방송문화연구소, 「공영방송」, 제2호(43~70쪽).